

	보 도 자 료		수도권매립지 종료	
	배포일자 2022년 2월 10일(목) 총 3매			
담당 부서 문화유산과	담당자 • 유형문화유산팀장 • 담당자	박부용 ☎440-4481 민화경 ☎440-4482		
사진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	참고자료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	
보 도 시 점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

인천시, 우수 자연유산 잠재자원 발굴한다.
- 2.23일까지, 우수 명승·천연기념물 등 국가지정문화재 신청 접수 -

인천시가 곳곳에 숨어있는 국가지정문화재 발굴에 나선다.

인천광역시는 인천의 역사와 함께해 온 자연유산의 아름다움을 온전히 전달하고 가치를 일상에서 향유하기 위해 관내 우수 잠재자원을 추천받아 국가지정문화재(명승·천연기념물)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.

현재 인천시 국가지정문화재는 명승 제8호 ‘옹진 백령도 두무진’ 과 천연기념물 제66호 ‘옹진 대청도 동백나무 자생북한지’ 등 14개의 천연기념물이 지정되어 있으며, 2021년에는 인천 장수동 은행나무가 천연기념물 제562호로 지정된 바 있다.

추천 기간은 관할 군·구에 2022년 2월 23일까지 접수 가능하며, 문화재청의 현장조사, 검토 및 심의를 거쳐 문화재적 가치가 인정되면 자연유산으로 지정된다.

백민숙 시 문화유산과장은 “인천시의 잠재된 우수 자연유산 발굴을 통해 시민들에게 자연유산의 가치와 역사성을 알리고 역사 문화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” 고 말했다.

< 사진 > 천연기념물 제562호, 인천 장수동 은행나무

관련사진

천연기념물 제562호, 인천 장수동 은행나무

